

여천NCC,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노바텍에서 3만7000톤 도입 ... 현대글로벌비스 북극항로 시범운항

현대글로벌비스(대표 김정배)가 8월15일 국내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수송 시범운항에 나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여천NCC가 수입하는 러시아 노바텍(Novatec)의 나프타(Naphtha) 3만7000톤을 수송하기로 계약했다고 해양수산부가 8월22일 밝혔다.



스웨덴의 스테나해운(Stena Line)에서 임대한 내빙선 스테나폴라리스(Stena Polaris)에 나프타를 싣고 9월15일 러시아 우스트루가(Ust-Luga) 항을 출발해 북극항로를 거쳐 10월10일 광양항에 도착할 계획이다.

스테나폴라리스는 2010년 건조된 6만5000톤의 케미컬 탱커이다.

운항속도가 15노트로 일반 벌크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북극항로 운항에는 일반 벌크선보다 5일가량 짧은 약 2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운항을 8월 말로 예정했으나 중동산 원유 가격 하락으로 북해산 원유 수요가 감소해 계획보다 미루어졌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운항은 얼음이 적은 8-10월이 최적기이며, 운송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지름길로 꼽히고 있다.

부산항을 출발해 수에즈운하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으로 향하는 기존 항로의 거리는 약 2만2000km에 달하지만, 러시아 서쪽의 무르만스크(Murmansk)에서 베링(Bering) 해협을 연결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5000km로 단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3>